

구 분	내 용
국 명	라오 인민민주공화국(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Lao PDR)
위 치	인도차이나반도의 중심
면 적	236,800km <sup>2</sup> (한반도의 약 1.1배), 국토의 70%가 산악지대
기 후	연평균 기온은 29도 (최고 39℃(4월), 최저 11℃(12월))
인 구	약 706만 명 (2018, IMF)
주요도시	싸완나켓(96만 9,700명) 짬빠삭(69만 4,400명) 루앙파방(43만 1,900명)(2015년, MPI)
민 족	라오툼(50%), 라오툽(30%), 라오슝(10%) 등 49개 소수민족
언 어	라오어
종 교	불교(69%), 토속 신앙(28%), 기독교(1.5%) 등
정부 형태	라오 인민혁명당 1당 독재

위치도



출처 : <https://www.nationsonline.org/oneworld/map/Laos-political-map.htm>

- 라오스 정부는 1990년 이후 인프라 건설이 경제성장과 무역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인식하에 교통·물류 인프라 건설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프라는 열악한 수준<sup>1)</sup>
- 외자 유치를 위한 법규 정비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높은 투자 리스크로 인해 외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18년 라오스 FDI는 13억달러로 베트남의 8.4%, 캄보디아의 41.9% 수준

〈표〉 라오스의 FDI 동향

단위: 10억 달러

	2014	2015	2016	2017	2018
라오스	0.9	1.1	0.9	1.7	1.3
캄보디아	1.9	1.8	2.5	2.8	3.1
미얀마	2.2	4.1	3.3	4.0	1.3
베트남	9.2	11.8	12.6	14.1	15.5

출처:라오스 건설시장 동향과 시사(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강 명 구, 2019.11.25.)

- FDI 부진 등에 따른 신규 인프라 건설 부족과 기존 인프라의 노후화 가속으로 인해, 라오스의 2018년, 2019년 인프라부문 글로벌경쟁력지수(GCI, Global Competitiveness Index)는 2013년과, 2014년보다도 하락

〈표〉 라오스의 인프라부문 글로벌 경쟁력지수(GCI)

	인프라 전체	도로	철도	항구	항공	전력공급
2013/2014	3.7(84)	4.2(65)	-	2.6(137)	4.3(76)	5.2(61)
2017/2018	3.3(102)	3.3(94)	-	2.3(127)	3.8(101)	4.8(75)

주 : GCI는 1~7로 7에 가까울수록 높은 경쟁력, ( )는 순위, '13/'14은 148개국, '17/'18은 137개국

출처:라오스 건설시장 동향과 시사(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강 명 구, 2019.11.25.)

- 현재 라오스의 인프라 확충에는 주변국인 중국, 베트남, 태국이 중심이 되어 참여 중
  - 중국은 동남아시아의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완성하기 위해 라오스를 남북으로 통과하는 철도를 라오스와 공동으로 건설 중에 있음
  - 중국 일대일로의 동남아 시작점이자 라오스의 국경도시인 보텐(Boten)과 비엔티안(Vientiane) 간 고속철도 건설(418km)\* 중

- 베트남은 루앙프랑방 수력발전소와 농캉 국제공항 건설에, 태국은 사야부리 수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하고 있음
- 이외에도 라오스 정부는 외자 유치를 통해 ‘28년까지 국내 및 초국경간 도로·철도 건설, 전력난 해소를 위해 발전소 건설 등을 추진 중
  - 라오스는 주변 국가(캄보디아, 중국, 미얀마, 태국, 베트남)들과의 연결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항구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로 건설에 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 중
  - 라오스는 아시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도로 총연장과 낮은 수준의 도로 포장률을 높이기 위해 외자 유치를 통해 도로 건설 및 개보수 중
- 라오스의 도로 총연장은 51,600km로 아세안 평균의 70% 수준이며, 국도의 22%, 지방도의 91%가 비포장도로 또한 내륙국가로서 태평양 진출을 위해 사바나켓-라오바오(Savannakhet- Lao Bao) 철도를 건설(220km)하여 베트남 동하항과 연결 추진 중으로 철도는 복선으로 건설할 계획이며, 비용은 4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 한편, 지속적인 도시화에 따른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한 주택 건설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숙박 시설 건설, 만성적인 전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발전소 건설등을 추진 중
- 라오스 건설시장은 정부의 도로, 철도, 주택, 전력 등 인프라 건설 확대로 2019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12.9% 성장할 것으로 전망
  - 건설시장 규모는 2019년 13.7억달러에서 2028년 40.9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출처: 라오스 건설시장 동향과 시사(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강 명 구, 2019.11.25.)

<그림> 라오스의 철도 건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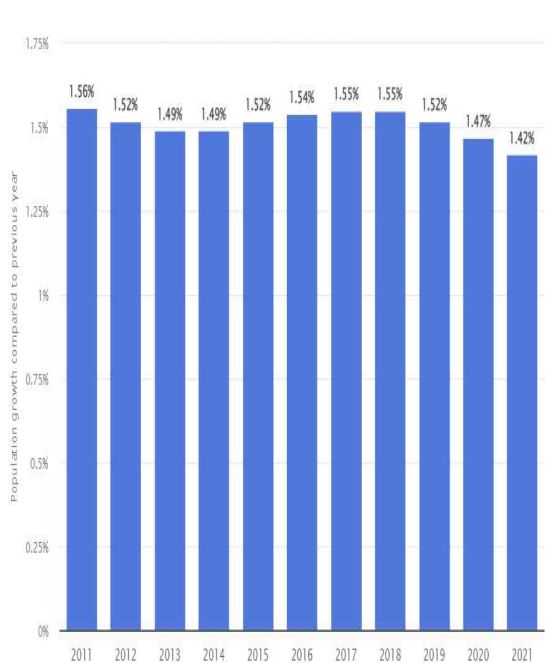
<그림> 라오스 건설시장 전망

-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과 중국 쿤밍을 잇는 중국 라오스 고속철도 사업(417km)은 2021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19년 11월 기준 7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음<sup>2)</sup>
- 총 75개의 터널 길이만 197.83km가 되는 대규모 공사로, 중국은 동 철도노선을 라오스에서 태국, 말레이시아를 거쳐 싱가포르까지 연결할 예정이며 전체 예산의 30%인 약 20억 달러를 부담하는 라오스 정부는 이 중 상당액을 중국 차관으로 조달하였음
- 2019년 태국 AMATA사는 라오스 정부와 북부 루앙남타주 및 우돔싸이주 친환경도시 건설을 위한 사업성 검토 MOU를 체결함
- 루앙남타주와 우돔싸이주는 중-라 고속철도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으로, 라오스 정부는 고속철도 건설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낙후된 북부지역의 인프라 및 기반시설 개발을 위해 본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2019년 10월 라오스 기획투자부는 인도네시아 철도개발 컨소시엄(Indonesia Railway Development Consortium)과 협력관계에 있는 라오스 PETROTRADE와 라오스-베트남 철도 노선 디자인 연구를 위한 MOU를 체결함
- 라오스 캄무안 주의 타켄지방에서 베트남 봉양항구로 연결되는 동 철도노선은 총 연장 240km~270km(라오스 구간 150km, 베트남 120km)로 단일 노선으로 건설될 계획임
- BOT 또는 PPP방식으로 2021년 말 착공하여 2024년 완공할 예정으로, 본 철도는 인도네시아 장비 및 기술을 사용할 계획임
- 라오스는 항구가 없는 내륙국가로, 라오스 공공건설교통부는 물류 운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라오스와 베트남 북부에 위치한 Vung Ang 항구를 잇는 도로 및 철도건설을 추진 중
- 라오스는 2019년 7월 아세안이 발표한 아세안 연계성 강화를 위한 19개 우선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중 4개가 선정되어 아세안 인프라 개발의 주요 수혜국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해당 프로젝트에는 미얀마와 베트남으로 각각 연결되는 신규 송전선 건설 프로젝트 2개와, 아시안 고속도로망의 일환으로서 2번국도 서쪽구간과 8번국도 개선 프로젝트 2개가 포함됨

1) 라오스 건설시장 동향과 시사(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강 명 구, 2019.11.25.)

2) 라오스 건설 인프라 시장 동향 (2020.01.03.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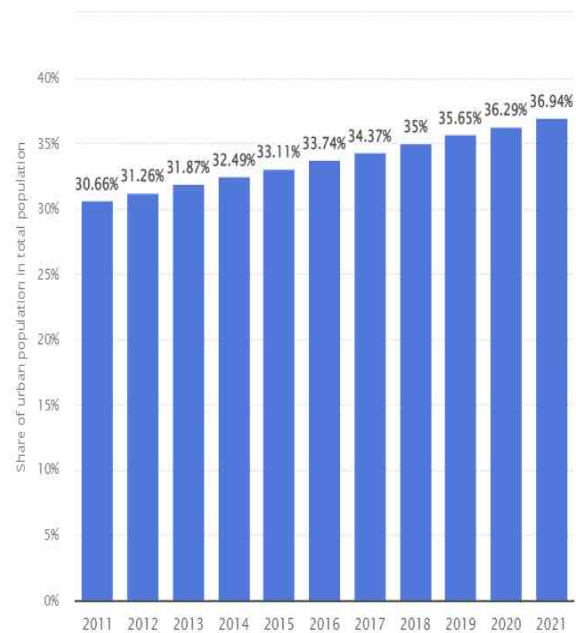
- ◆ 라오스 정부는 제8차 국가종합개발계획에 SDGs 실현을 위한 세부 과제를 마련했으며, 도시 정비 및 개발사업에 노력 중임.<sup>3)</sup>
- 2015년 UN은 지속 가능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17개 과제를 채택했으며, ‘포용적, 안전한, 회복력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을 11번째 목표로 설정한 바 있음.
- 라오스의 도시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도시 거주 인구 비율이 2011년 30%에서 2021년 36.94%로 상승했으며 한편으로 라오스는 농촌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 중임.
- 2018년 9월 개최된 국가종합개발계획 중간평가 회의에서 총 4833개 가구 및 220개 가구의 빈곤 퇴치를 위해 주거환경 재개발 등을 추진한다고 발표함.



출처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804974/population-growth-in-laos/>

<그림> 라오스 인구 성장률



출처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804988/urbanization-in-la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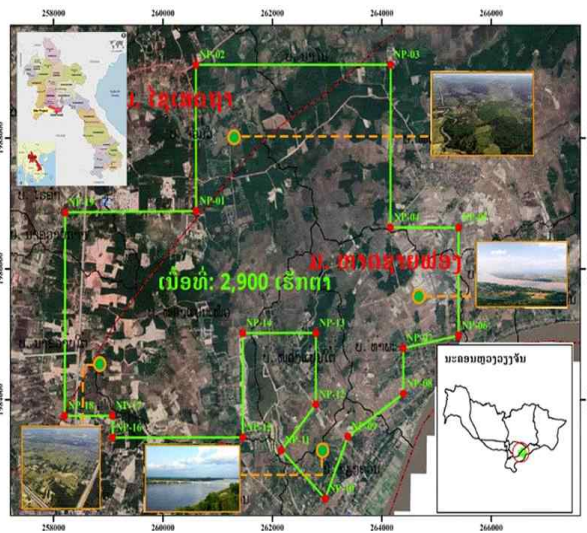
<그림> 라오스 도시 인구 비율

3) 라오스 도시개발정책 추진 현황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 2018.12.24)



## □ 비엔티안

-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시는 아세트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선정도시로 라오스 정부는 홍수 방지를 위한 배수 처리 개선, 사이세타 경제 특구 ICT 스마트존 도입, 지속가능한 교통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 재정 부족으로 진행이 더딘 상황
- 정부 추진외에도 라오스 건설회사인 DDCG (Douangchaleurn Development Construction Group)가 라오스 비엔티안 시 내에 핫사이퐁 (Hatsayfong) 및 싸이세타 (Saysettha) 구 (District) 내에 12개 마을(Village)을 포함해 총 2900헥타르 규모의 스마트시티를 계획하고 있음
  - 해당 12개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계속해서 주택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도시개발로 거주민들을 이동시킬 경우, 대규모 자금이 수반되기 때문이기도 한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정부 취지도 고려하여 추진 중



출처: <https://laotiantimes.com/>

〈그림〉 비엔티안 스마트시티 조감도

출처 코트라 해외 시장 뉴스 (2021.12.27)

〈그림〉 비엔티안 스마트시티 조성 지역도

-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자리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며 또 해당 주민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 제공하여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윈윈 모델을 지향하고 있음
- 스마트시티 개발은 비즈니스, 산업, 교통, 헬스케어, 주거, 스포츠, 관광, 농업, 아세안 빌리지, 콘도미니엄 주거단지, 고속도로 서비스, 산림 공간, 도심 공원 총 13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개발할 예정

## □ 루아프라방

- 라오스 북부지방에 위치한 루아프라방에서는 배수처리, 홍수방지와 병행한 습지복원을 통해 주거 여건 개선 사업, 생태계 복구 및 관광산업 발전 모색, 도로 포장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 우돔싸이

- 제11차 라오인민혁명당 전당대회에서 Khamphanh Pheuyavong 우돔싸이주지사 겸 당서기는 우돔싸이주가 라오스 북부지역의 사회경제개발 중심지로 전환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스마트시티 조성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발표함
  - 우돔싸이주 나모르 군내 12,000ha 부지에 라오스-중국 철도역(금년도말 완공 예정), 우돔싸이주 공항 및 비엔티안-보텐 고속도로(비엔티안과 중국국경 연결 예정)와 연계하여 산업, 물류, 무역, 주거, 서비스 및 녹색단지로 조성 예정
- Amata Corporation은 10억달러의 예산을 투자하여 410 헥타르 규모의 Amata Smart and Eco City 개발 중으로 Amata Smart and Eco City 1단계 사업은 410ha의 면적의 스마트 및 친환경 산업단지 개발을 목표로 2022년 1월 11일부터 착수 중에 있으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라오스의 경제 성장을 향상시키고 지역 주민들에게 고용 및 지원 서비스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음
  - 현재까지 프로젝트의 건설 일정이 발표되진 않았지만 20,000ha까지 부지 확장 가능성이 있으며 일본무역진흥기구 참여 중임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2386653/amata-to-develop-lao-smart-estate>

〈그림〉 Amata Smart and Eco City  
조감도



출처

<https://www.tradelinkmedia.biz/publications/7/news/3546>

〈그림〉 Amata Smart and Eco City  
기공식

- 동남아시아의 경우, 신도시 개발, 과잉 도시화에 따른 문제 해결, 경제 성장 동력 확보, 국가 및 도시 경쟁력 제고 등의 목적으로 스마트시티 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며, 2018년 아세안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출범을 계기로 역내 스마트시티 개발에 대한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 2018년 11월 제32차 ASEAN 정상회의에서 ASEAN Smart City Network이 정식 출범함에 따라, 라오스는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도시로 선정된 수도 비엔티안과 북부 도시 루앙프라방을 Smart City로 육성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 중임



〈표〉 우리나라의 기업이 라오스에서 참여하고 있는 사업 사례

구분	주요 내용
비엔티안 배수시스템 개선사업 <sup>4)</sup>	삼안, 케이씨아이, 한국 환경공단이 공동 참여한 스마트 솔루션형 사업임으로 라오스 비엔티안 배수시스템 기본구상은 비엔티안 시 관리 및 서비스국(VCOMS)에서 신청했음 비엔티안 시 배수시스템 개선과 막히아오 강 하수도 개선 사업 등 5개 물관리 마스터플랜이 중심으로 이에 홍수로 인한 잦은 범람과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배수시스템 기본구상을 수립할 예정
건강한 물순환 체계 구축 사업 <sup>5)</sup>	한국빗물협회가 라오스 건설교통부, 환경부 2개 부처와 라오스의 기후 변화 대응, 자원 순환, 건강한 물순환 체계 구축 등을 위해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 한국빗물협회의 웅벽 기술이 적용된다면 획기적으로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음 또한 라오스 건설교통부 장관의 제안으로 추후 문화관광부의 업무협약 참여를 통해 매년 침수로 인한 피해가 잦은 문화관광도시 방비엥에 협회 기술을 적극 적용해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기로 함

4)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92990>

5) <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954837>